

터키 전자산업동향

1. 경제동향

구 분	94	95	96
GDP 성장률	-5.4	4.0	4.0
소비자물가지수	106	90	60
산업생산	-5.0	2.0	3.0

유럽 최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터키는 다른 유럽국들과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정치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인건비도 저렴하며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 OECD, IMF, NATO, 그리고 유럽회의에도 가입되어 있다.

또한 터키는 '63년 EC에도 가입하였으며 EU의 정회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터키의 EU가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터키가 인권유린의 의혹을 사고있기 때문이다. '92년 3월, 터키는 EFTA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EU내에서의 유사한 특혜들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터키는 공업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분야가 GNP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이러한 농업

분야는 총GNP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공업, 건설, 무역 유통 등이 GNP의 34%를 차지하였다.

'95년 4월말 기준시 산업생산은 5%의 감소율을 보였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때 1%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에너지분야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0.7%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의 제조업과 광산분야의 경우 각각 1.5%, 2.4%의 계속된 감소율을 보였다.

터키정부는 몇년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PTT당은 당초 '93년에 시범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제지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점차 좋아짐에 따라 터키 정부는 민영화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전자산업 동향

'80년대 들어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터키의 전자산업은 '92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91년도의 경우 전체 전자제

품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자산업을 이끌었던 CTV생산도 계속 감소되었다. '91년의 230만대 생산규모가 '94년에는 150만대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

EDP기기와 부품의 경우에도 약간의 성장세는 보였으나 생산은 여전히 감소되어 '94년의 경우 전년대비 8% 감소된 17억달러의 생산을 기록하였다. 터키의 주요역상대는 EU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때 EU와의 교역은 수입의 51%, 수출의 58%를 나타냈다.

이중 CTV수입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CTV수입규모는 '91년도 당시 수입규모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소세는 '95년들어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CTV생산의 경우 '96생산은 200만대정도로 전망된다. 과거 코롬국가들의 높은 수요증가로 인해 터키의 수출이 한때 많은 덕을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수요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터키의 내수시장은 '92년에도 전년에 이어 침체를 거듭하였다. '93년들어 이

러한 내수경기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94년에는 터키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21% 이상이나 감소되었다. 터키의 전자산업 태동기는 1958년으로 볼 수있다. 당시에는

가전제품 수입이 쿼터제도로 금지되던 시기였다.

1964년 터키정부는 조립산업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안전보장위원회는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터키에서 최초로 흑백TV가 생산되었다. 1972년에는 터키 라디오/TV방송국(TRT)에 의해 정규 TV방송이 시작되었으며 1983년 들어 칼라방송이 시작되었다. '70년 중반 흑백TV의 생산은 피크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후 '82년들어 CTV가 생산되면서 흑백TV생산은 엄청나게 감소되었다. 수입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터키의 전자제품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87년부터 수출이 큰폭으로 신장되었는데 특히 대EU수출이 많이 증가되었다.

'84년에는 VCR이 생산되었다. VCR 생산은 이후 급성장되어 '86년 23만대의 생산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TV채널수가 늘어나고 기술개발이 저조해짐에 따라 VCR의 내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오디오기기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86년들어 생산피크를 보인후 경제불황과 수입품 증가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가 덕에 '89년들어 약간의 증가율을 보였다. '85년들어 금전등록기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여섯개의 금전등록기 제조업체들이 터키에서 활동하고 있다.

'88년에는 금성사와 합작으로 전자랜지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중 90% 이상은 수출이다.

'65년에는 PTT사가 PPT ALRA라는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통신산

터키 전자산업 동향과 전망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4		1995		1996(E)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전 자 산 업 계	1,672	2,984	1,737	3,136	1,840	3,330
산업용기기소계	791	1,747	815	1,840	856	1,948
정보 기기	170	506	187	557	209	612
사무 기기	29	48	30	49	30	50
계측및제어기기	13	212	14	225	16	236
의료및산업전자	84	153	88	161	95	169
정보통신기기	495	828	496	848	506	881
가정용기기소계	653	563	679	591	724	629
영상 기기	550	430	570	452	610	483
컬러 TV	540	393	563	415	604	446
비디오레코드	10	15	8	15	6	16
비디오카메라		22		21		21
음향 기기	90	100	95	105	99	110
기 타	13	33	14	35	14	36
전자부품소계	228	674	243	706	261	752
능동부품	23	276	25	298	28	328
Tube	3	135	3	142	3	150
다이오드	4	12	4	12	5	13
Discrete Semiconductors	4	15	4	16	5	17
I C 및 기타	12	114	14	129	17	148
수동부품	100	197	108	203	118	213
Capacitor	12	37	13	37	15	38
저항기	3	18	3	18	3	19
커패시터&스위치	14	63	15	67	17	72
트랜스포머	37	39	38	38	40	39
릴레이	5	13	5	14	6	14
P C B	29	27	32	29	37	32
기 타	105	201	109	205	115	211

주)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6. Vol.III

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PPT ALRA는 Teletas사의 전신이다. '67년에는 Netas사가 설립되었다. 동사는 PTT사와 캐나다의 Northern Telecom사의 합작기업으로 교환기와 전환기를 생산하였다. TTE, Simko, Teleks, Kumtel, Telesis와 같은 기업들도 60년대에 설립되었다.

'85년, Telectas사는 12채널 디지털 교환기를 만들기 위해 Bell Telephone Manufacturing사와 협정을 맺었다. Teletas사는 그외에 무선링크, 다중화시스템, 그리고 광전송시스템도 생산한다. '86년 최초로 차량용 전화기가 사용되게 되었는데 '92년에 GSM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88년, PTT사는 투자를 깨울리한 결과 국제입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터키의 통신

산업에 대한 수요가 격감하게 되었으며 3천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 그러나 '90년 들어 PTT사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수출도 늘어나게 되었다. 수출의 경우에는 동구권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흑백TV용 튜브는 현재 Ensa사만이 생산하고 있다.

카본 필름과 금속산화물 레지스터, 그리고 세라믹 캐퍼시터는 Testas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필름 캐퍼시터는 Testap, Tupko, Edo, Kondas와 같은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 PCB의 경우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의해 생산되어 지고 있으며 대형설비업체들은 자체생산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라미네이트는 수입되는 형편이다. 터키는 다양한 ASIC디자인센터와 프로토타입 생

산에 필요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반도체 산업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코일과 트랜스포머, 그리고 몇몇 커패터 등은 터키 국내에서 생산되어 진다.

그러나 터키의 부품산업은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그밖에 Bes사, Era사, Zer사, Enesis사 등이 방송장비, FA장비, 계측기, 전자 의료기기와 같은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Korel사는 '90년 PC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Vestel사는 수출용으로 모니터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대략 1,880여개의 업체들이 컴퓨터판매 및 제조, S/W제조, 시스템 디자인업에 종사하고 있다. 터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대의 기업은 IBM사이며 KOC Unisys사, NOR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